

■ 1997년 대검 수사기획관 박주선 의원이 밝힌 'DJ 비자금' 비사

# “검찰 의지 YS에 전달 수사 유보 담판”

### “당시 대선때 YS 중립으로 보기 어려움”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중립 여부를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 과정 비사를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15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1997년 대선에서 YS의 선거 중립 여부에 대해 “중립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YS가 선거 중립을 주장하려면 당시 DJ 비자금 고발 사건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수사 불가 및 유보 입장을 나타내야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DJ 비자금 고발 사건의 부당성에 대해 ▲당시 청와대 고위층에서 주도한데다 한나라당에서 면책 특권을 이용,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등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며 ▲고발 내용도 DJ와 측근 인사들의 계좌를 뒤지지 않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을 지냈던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 과정 비사를 털어놓았다.

박 의원은 이어 상도동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YS의 ‘수사유보 지시’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당시 여론의 분위기는 “비자금 조성 여부를 떠나 DJ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사 앞의 포토라인에 세게만 해 달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의 전반적인 분위기도 수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박 의원은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DJ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당시 김 총장에게 ‘금융 실명제법 위반 등 범의상으로 수사 진행할 수 없고 DJ 비자금을 수사한 다음 YS 비자금도 수사할 수밖에 없으며 여권이 밀어붙인다면 제2의 5·18은 물론 전국적인 소요로 대선 자체를 치를 수 없는 비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김 총장은 내가 작성한 보고서를 갖고 10월19일 비밀리에 청와대에서 YS를 만나 DJ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YS는 ‘검찰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안다”며 “결국 21일 발표된 수사 유보의 검찰의 의지로 이뤄진 것이지 YS의 확고한 신념이 담긴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과 YS가 강력하게 수사를 지지한다면 곧바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수사 유보’를 발표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는 사실상 검찰의 혁명으로 볼 수 있었으며 지금은 관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엔 정말 긴장의 연속이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DJ 비자금 사건의 수사 유보는 범의상이나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며 개인적으로나 역사를 우려한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광주 빛고을골프장 민간위탁 난항

### 도시공사 노조 반대... 나서는 업체 없어

### 공사측 “사장 취임 후 본격 추진할 것”

광주도시공사가 운영하는 빛고을골프장을 민간위탁해 운영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지만 도시공사 노조가 반대하고 있어서다.

15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에 따르면 강운태 시장은 지난 2월 남구 노대동에 있는 빛고을골프장(대중제 9홀·연습장)을 민간에 위탁하면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며 빛고을골프장 민간위탁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 개장한 빛고을골프장은 한 해 동안 5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빛고을노인복지재단에 12억원을 지원해줘 사실상 적자상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지재단 지원금이 20억원에 이르는 데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야간라운딩을 금지함에 따라 재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강 시장이 민간위탁 카드를 꺼낸 지 4개월이 지났으나 노조가 기구(인원) 축소 이유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현재까지 민간위탁에 관심을 보이는 업체도 없어 민간위탁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다.

도시공사 노조관계자는 “골프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신상과 직결된 문

제가 때문에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주류인 것 같다”며 “다른 지자체도 골프장 민간위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노조도 민간위탁을 반대하고 있고, 아직 정식으로 업체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섣뜻 나서는 업체가 없다”며 “새 사장이 취임하면 본격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흥기남 도시디자인 국장을 지난 1일자로 도시공사 사장으로 임명하려고 했으나, 흥 국장이 지난해 남구청 부구청장 재직 시 구(區)금고 선정과정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어 사장 임명이 보류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北주민 또 남하... 9명 서해로 귀순

### 일가족 포함... 정부, 동기·경로 등 조사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서해 연평도 해상을 통해 남측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소식통은 15일 “북한 주민 9명이 지난 11일 무통력선을 타고 연평도 인근 우도로 넘어왔다”면서 “이들은 귀순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들 9명 가운데는 일가족도 포함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과 경찰, 합참, 기무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신문조는 경기도 시흥의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이들 주민의 월남 동기와 경로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주민의 남하는 지난 2월5일 31명이 서해상을 통해 넘어온 지 4개월여만이다. 당시 북한 주민 31명 가

운데 귀순 의사를 표시한 4명을 제외한 27명은 남하 50일 만인 3월27일 서해 상을 통해 북측으로 송환됐다.

북한 주민의 집단 탈북이 잇따르면 서 식량난 등에 따라 북한 주민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지고, 체제 이완이 심화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일고 있다.

북한은 이번 귀순에 대해 송환을 요구하며 강력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남북관계 악화의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측은 지난 2월 남하했다가 귀순한 4명에 대해서도 송환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었다.

/연합뉴스



# 사법개혁 사수를 위한 야당5당 결의대회 정치검찰 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15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사법개혁 사수를 위한 야5당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FTA 발효 年 최대 2조1천억 세수 감소”

신범철 경기대 교수는 15일 민주

당 천정배 유선호 의원 등이 국회에서 연 ‘한미FTA 경제효과 검증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부가 제시한 관세 수입 등을 토대로 표준모형(연평균 세수 2조 1320억원 감소), 자본축적모형(1조 9280억원 감소),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모형(9315억원 감소)으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모두 세수가 감소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연평균 6조30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는 정부 추계에 대해 “정부는 효과 추계시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정태모형에 의한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년차까지 적용하고 5년차 이후에는 생산성 증대효과 고려모형을 적용, CGE를 응용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선심공약 남발 정치인은 망국노”

### 한나라 정몽준 전 대표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는 15일 대륙 등록금 대폭 인하를 추진 중인 한나라당 지도부를 겨냥, “쏟아지는 선심성 공약이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작문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중진위원회에서 “정치인이 사치를 안정시키기는커녕 앞장서서 어지럽히는 것 같다. 정치인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정치인의 선심성 공약은 탐욕에 눈이 멀어 나라를

망치는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흔히 이완용을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한다. 그렇다면,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한 정치인은 나라를 망치는 ‘망국노’란 소리를 듣고도 남는다”며 “나라를 망치는 건 한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포퓰리즘’, ‘뽕풀리즘’이라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며 민주주의의 약점”이라며 “내년 선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한나라당은 더욱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알프스 2개봉 매각 보류

### 여론 거센 반대 부딪쳐

오스트리아가 여론의 거센 반대에 밀려 알프스 봉우리 2개를 매각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오스트리아 공기업인 연방부동산법인(BIG) 대변인은 14일 “대안을 검토하기 위해 매각 계획을 보류했다”며 매각은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만 매입 주체는 ‘오스트리아 기관’으로 제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는 티롤주 동부에 있는 해발 2,700m 높이의 알프스산 봉우리 ‘그로스 키니가트’와 2,600m 높이의 ‘로스 코프’를 총 12만1000유로(1억9000만 원 상당)에 매물로 내왔고, 이후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연합뉴스

# 2010 大韓民國 신지식인 대상 수상

오리요리 신지식인 박만순의 상차림 코스요리 등

월드덕 추천요리

수상배경 2010. Korea Food Expo.COEX 셰프의 상차림 월드덕 브랜드 요리출품

건강에 좋은 백초, 술손 “발효 효소” 상시준비 단체모임환영

별미오리탕 6,000원  
天下第一 표고 버섯탕 10,000원  
제철 야채전골(4인기준) 48,000원

점심특선

통선동 월드덕 많이많이 사랑해주세요! 062)671-2177,1177

•광주1등맛집 •다담회 한국맛집 •(주)외식공간 오리요리 최고맛집 •우리은행 우리나라우리명가 •광주은행 소호명가

# 古家 고향의 맛- 약탕기 홍삼삼계탕

홍삼 외 15가지의 엄선된 약재와 견과류를 첨가한, 차별화 된 진한 육수의 참맛을 선사합니다.

홍삼은? 한의학적으로 가장 오랜 약용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우수한 건강 보조식품입니다.

고가약오리탕

점심/특선  
오리탕 6,000원  
갈비탕 7,000원  
11:30~1:00

약오리탕  
1마리 40,000원  
반마리 20,000원  
토종닭 백숙 45,000원

고가약오리탕 약탕기홍삼삼계탕

예약문의 062)226-8254  
※주차장 및 계모임, 단체모임 가능한 연회석 안내